

우리를 지키시고 구해주시는 이

고후 1,8-11

1

나는 3·1절을 계기로 다시 감옥에 들어가기 이전의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마지막 공판일 22일을 앞에 놓고 돌아가는 분위기에서 더욱 침통해졌습니다. 그것은 나만이 가진 심정은 아닐 것입니다. 3·1절에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알려진 것만도 서울에서만 60여 명이 연금이 되었고, 기도회를 보고 나오는 이들 중에서 짐승처럼 차에 실려 경찰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광주에 강연차 갔다가 밤중에 호텔에서 모욕적으로 수색을 당하고, 다음날 새벽에는 자던 중에 내복 바람으로 5-6명에게 개 끌려가듯 차에 실리워 서울에 까지 압송되어 집에 연금당해야 했고, 집은 밤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집수색을 하겠다는 10여 명의 경찰들과 아내가 대결하는 대소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석헌 선생, 이해동 목사 때도 강제로 집 수색을 당했다고 합니다.

요사이에는 오는 22일의 공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불구속자들을 투옥한다는 풍문입니다. 본인들은 모두 담담하게 그 날을 각오하고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정은 착잡합니다. 나는 우리의 투쟁을 위해서 당국의 강경 정책이 잘 되는 일이라는 일부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심정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오히려 70, 80 고령의 어른들과 그래도 이 민족의 장래를 걱정해서 마음과 몸을 바쳐오던 두 여자들! 젊은 몸도 아닌 저들이 투옥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옥중에서의 쓰라리던 경험이 다시 되살아 납니다.

내 우울은 그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걱정됩니다. 이렇게 미련하게 몰고 가면 결국 이 민족의 운명이 어찌될까를 생각해서 착잡합니다.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우울한 생각은 이런 횡포를 당하고만 있는 우리 민족의 못난 데 대한 슬픔이 겹치기도 합니다.

다시 돌이켜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면 한심합니다.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이 적은 무리는 그 대열에서 떨어져나와 이리에게 포위되어 있는 잃어진 소수의 양떼의 운명과도 같습니다. 단 하루, 단 한 걸음이라도 안심할 수 있는 법의 보장이 없습니다. 정말 지금은 다음 시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풍전등화의 운명에 내맡겨진 몸입니다. 아무리 악을 쓰고 손톱을 곤두 세우고, 피를 토하는 절규를 한다고 해도 세평(世評)에서 비웃는 대로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는 격 이상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허탈해집니다.

이 예배는 공판을 앞둔 예배입니다. 나는 예수를 생각하고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의 본문을 발견한 것입니다.

2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여러분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서 살 희망을 포기해 버릴 만큼 심한 환란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말입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19장 이하에 반영된 에베소에서 당한 사건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는 선동된 군중들에게 그대로 짓밟혀 죽을 뻔 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간신히

빠져나와서 사람을 가만히 보내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여러분이 보는 대로 이제 나는 성령에게 사로잡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신 것으로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고 합니다(사도 20, 23).

바울의 가는 길에는 언제나 매질, 투옥과 같은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시아 어느 도시에서도 같은 박해를 받을 때 너무 힘에 겨워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절망과 포기, 또는 완전히 내맡기는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죽음을 각오했습니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의 우리의 심정을 대변한 것이 아닌가?

바울은 이 편지 속에서 “차라리 육신을 떠나서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5, 8)고 합니다.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눈에 나타나는 현상만 볼 때 스쳐가는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정략적 사고, 역학적 측정(力學的 測定)으로 생각하면 이런 어려움을 견딜 수 없으며, 또 견딘다고 해서 별 승산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절망의 심정에 사로잡혔던 바울은 “마침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느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고 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이 약속은 그가 믿는 하느님, 다시 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느님 앞에서 보장된 것입니다”라는 확신과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절망 속에서 그냥 머물지 않고 마침내 “그러나”(alla)로써 그의 재기를 다짐합니다. 바울에게는 내적 고민이 있었습니다. 회의와 절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느님이 계시지 않느냐! 내가 그를 계산에 넣지 않았었구나!’라는 뜻입니다. 하느님! 그 하느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즉, “그러나”에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던 잘못에서 다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느님을 재발견한 환희와 그것에서 나온 힘이 용솟음치는 전환의 발돋움입니다. 그 하느님은 막연한 하느님이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까지 심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지금도 건져 주시는 이’입니다. 여기 ‘건져 준다’는 류오마이(luomai)는 ‘구원한다’,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3

나는 우연히 이 귀절에서 문익환 형의 시를 생각했습니다.

원까지만 살았으면
하던 폐병들린 허약한 소원이
꺾일 듯 꺾일 듯 하다
지나치기 이미 4년
365일을 네 곱해서 1460일
그 하루 하루를 나는
덤으로 살았다.
내 마음만큼이나 작은
유리잔—거기서 넘어나는 아버님 어머니의 눈물을
헛바닥으로 감치다가 나는
찝질한 인생을 덤으로 맛보았다.
여섯 달 살고
혼자되어도 좋다며
시집은 아내 ...
그 나팔꽃 같은 마음에 내 목청을 다 쏟고
펼럭이는 가슴 옷자락에
아내의 체온을 묻히며 살기 벌써 28년
이제사 나는 덤으로 사랑을 알듯 하다.
바다 물살에 무너져 내리는

호, 영, 의, 성 네 놈의 모래성 ...
 하늘끝처럼 시린 달빛을 등어리에 받으며
 두 손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래를 쓸어 올리다가 올리다가
 손가락 사이 사이로 새 나가는
 모래알들 속에서
 억만 년을 씻기지 않는 반짝임을 보는
 아 ...
 그 놀라움을 나는
 덤으로 만져 보았다.
 나의 인생보다도 소중한 덤을
 이렇게 한아름 안겨 주신
 아 ...
 그분의 말씀은 저절로 다 노래라서
 그분께 내 마음을 아뢰려다가 나는
 덤으로 노래를 익혔다.
 진달래 꽃송이처럼 열린 가슴에
 그 분의 노래가 봄비처럼 내린다.

이것은 『덤』이라는 시입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것은, 그가 4년 동안 폐병으로 생사(生死)의 명멸의 고비를 겪으면서 최대의 소원이 50세만 살게 해달라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그는 어머니, 아버님의 눈물어린 사랑을 덤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6개월을 넘기지 못할지도 모르는 약체(弱體) 때에 ‘나팔꽃 같은 마음을 가진 처녀의 여섯 달만 살고 과부가 돼도 좋다’는 박용길이라는 여자가 쏟아붓는 사랑을 덤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호, 영, 의, 성”을 받아 차디찬 현실에서 가진 애를 쓰며 기르는 동안 “억만년을 씻기지 않는 반짝임을 보고 놀라는 삶”을 덤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덤으로 받은 삶에 감사해서 마침내 덤으로 주는 그 분께 감사한

마음에서 스스로 시인이 되게 한 것도 덤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4

그런 그는 ‘50세만’이라는 소원에서 이제 60세가 되었으니, 자기의 소원에서 10년을 덤으로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덤으로 받았다고 믿었기에 이 거래를 위해 바치기 위해 절규하다가 옥중의 몸이 되는 영광을 또 덤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뜻밖에 온 세계에 불길들을 높이는 사건화(事件化)의 손을 보는 경험을 덤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이 그런게 아닌가! 제가 잘나서 무엇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도대체 몇차례나 죽음의 고비를 넘겼나! 그것이 우리의 힘인가? 아닙니다. 우리를 건져 주신 그 분입니다. 그 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우리 힘인가? 아니, 그 분이 건져 주시어 삽니다. 그뿐인가? 그렇다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감사하고 말면 다 된 것인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감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희망에서 살아왔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건져 주신 그가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고 구해주실 것을 믿읍시다! 이 희망은 “육(肉)의 딸아” 하는 희망이 아닙니다. 육에 따른 희망이면 “주에게서 떠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4,6)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입니다”(4,7).

보이는 것, 굉장히 강한 것 같고 튼튼한 것 같아도 그 따위 것에 위축되거나 실망하는 것도 “육에 대한 삶”을 의지하는 결과이고, 그런 것을 넘어서서 희망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5

끝으로 바울의 부탁을 들읍시다! 이것은 수난자들의 부탁, 지금 옥중에 있고, 어쩌면 옥중에 들어갈 지 모르는 이들의 부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협력해 주신다면 많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여기 기도로 협력해 달라는 협력의 원문 sunupourgeo은 발돋움이 되는 것, 팔을 껴안는다(Unterfassen Cooperating)는 뜻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하였던 사도행전의 보도에서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최후 부탁을 하고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로 되어 있고, 그리고는 서로 껴안고 큰 소리를 내며 울고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기도에는 골방에서 하는 것, 공동체로서 하는 기도 그리고 행동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이 셋이 일체가 됐을 때, 즉 삶이 곧 기도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애찬을 나눌 것입니다. 이 애찬은 죽음을 결심한 주님이 직접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흘린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서든지 그의 피와 살을 나눈 혈연적인 형제임을 재확인합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팔과 팔을 끼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이해동 목사의 축도를 받읍시다!